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5. 30 ~ 2021. 6. 12 제248호



▲ 인도에서 만난 시크교인. 제공: WMM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파란 천으로 덮여있는 게 관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테이블이다. 그 위에 경전도 놓여 있다. 카메라를 응시하고 검정 터번을 쓴 남자는 시크교 구루(지도자)인 듯 보인다. 이들이 시크교도인 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시크교의 상징인 터번 때문이다. 시크교는 인도에서 발원한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융합한 신흥종교다. 시크교는 인도의 많은 악·폐습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며 생겨났다. 그러나 인도의 악·폐습은 여전히 보인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인간을 계급으로 나눈 카스트제도, 아직 돌보고 양육이 필요한 다음세대를 상대로 하는 조혼, 가정 폭력 등... 과연 무엇이 이러한 악·폐습을 끊을 수 있을까? 존재적으로 죄인인 인간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다.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복음이 인도의 영혼들에게 들려지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6:4) [GPNEWS]

전통주의 노선의 美UMC 한인 목회자에 징계성 결정 “물의”

동성애 목회자 안수·파송 반대 입장 목사 3명 재파송 불가 통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표한 목회자 안수와 파송 문제를 놓고 갈등을 거듭해온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전통주의 장정에 따른 동성애 목회자 안수·파송 반대 입장을 가주태평양양회 소속의 일부 한인 목사들에 대해 ‘재파송 불가’라는 사실상의 징계 결정을 내려,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감리교단의 재파송 불가 방침은 교단 산하 교회에 파송 방식으로 목회자를 선임하는 교단의 전통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결정이다.

미국 UMC 가주태평양양회 소속 한인교회에 따르면, 이 연회의 그랜트 하기가 감독은 ‘연회의 진보적인 방향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서부지역의 UMC 산하 감리인 목사(남가주주의교회),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이성현 목사(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등 3명의 목회자들에게 교단법이 규정한 파송협의 절차도 없

이 재파송 불가를 통보했다. 이 통보가 현실화되면 이들 3명의 목회자는 오는 6월 30일 이후 연회의 파송을 받지 못한 목사라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야 한다.

이에 대해 UMC 서부지역 평신도연합회 회장 최정관 장로(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는 “진보적인 연회의 방향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소속된 교회에 이들 3명의 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는 통보는 비신앙적, 비민주적 월권행위”라며 “하기야 감독이 임의로 통보한 파송불가 철회를 위한 결의문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찬타임스가 전했다.

이에 앞서 동 연회 한인교회협의회는 지난 5월 4일 한인교회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날 참여한 87명의 한인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의 뜻을 모아 전국평신도 연합회(회장 안성주 장로, LA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하기야 감독에게 보낸 공

개서신 지지를 결의했으며, 교인들의 뜻을 모은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또 미주 남가주지역 한인교회는 하기야 감독의 재파송 불가명령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지난 5월 17일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미주기독교총연합회(회장 민승기 목사), 미주 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회장 한기홍 목사), KACC(창립준비위원장 샘신 목사), 평등법저지운동본부(회장 한기홍 목사), 강순영 목사(JAMA 전 대표) 등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감독의 결정은 한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 내린 인종차별적 결정으로 인식하고 우려를 표한다. 이는 한인 사회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요, 한인 교계가 목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표명했다. [GPNEWS]

(2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32)

예수 그리스도 + 나 = 생명의 변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대상이 된 나를 만나주시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나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고린도후서 5:17)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존재가 뒤집어지는 것,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요한복음 3:3)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문습니다.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인간 존재의 근본은 ‘생명’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을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를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에베소서 2:1)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결과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극단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럼 이전에 살았던 나는요?” 이전에 살았다고 꾸무럭거리고 돌아다니기는 했지만 그것은 죄에 대해서 산 것(반응하는)이지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반응할 수 없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치고 그다음 뭔가 부족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어느 때든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주님께 다른 필요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이 필요한 자가 아니다. 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내가



일러스트=김경선

필요하다.” 주님의 초점은 이렇게 항상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한 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각색하고 옷을 입힙니다. 정치가 예수, 인권운동가 예수, 사회사업가 예수, 문화예술가 예수... 그러나 성경 전체는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믿지 않는 결과는 그래서 결국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로 확 갈라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정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무슬림 개종자(MBB) 심한 박해... 전 세계 교회에 기도 요청



▲ 알제리의 성도들.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MBB, Muslim Based Believer)들이 심한 박해 가운데 있어 오픈도어선교회가 그 소식을 전하며 전 세계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다.

키르기스, 가정교회 지도자 부부... 추방 위기

MBB 부부인 짜릴과 자이다는 개종과 사역 때문에 라마단 기간에 마을 주민들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았다. 20명의 마을 사람들이 짜릴의 집에 와서 그에게 대화하자고 하면서 그의 신앙에 대해 물었다. 짜릴이 자기와 가족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자, 무슬림들은 짜릴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신앙'으로 되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한 달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짜릴 가족이 마을 전체에서 보이콧을 당할 것이며 엄청난 문제들을 만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며칠 후 그들은 짜릴과 자이다에게 다시 찾아와 그 가족을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했다. 그들이 제시한 한 달의 기한이 며칠 후면 끝난다. 짜릴과 자이다 가족의 안전과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사우디, A형제... 2개의 고소건과 아내와 이혼 위협

사우디아라비아의 MBB A형제는 최근 거짓 절도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2개의 고소 건이 남아 있다. A형제는 몇 년 전에도 기독교신앙 때문에 수년간의 감옥형과 매질을 당할 뻔했다. A형제의 아내는 친정 부모에 의해 친정집에 갇혀 A형제와 이혼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5일, 아내의 어머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아프다며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가 도착하자 가족들은 그녀를 집에 가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친정 식구들은 그녀에게 남편은 곧 감옥에 갈 것이니 여기 있으라고 말하며 이혼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형제는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노력 중이다. 5월 30일은 A형제의 다음 재판이 열린다. A형제와 아내와 아들이 모두 주님의 평안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A형제의 아내가 속히 돌아

오도록, 5월 30일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도록, A형제의 처갓집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기도하자.

알제리, 기독교 서점 운영하는 목사·직원 재판 앞뒤

알제리 성도들이 5월 30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라히드 세이그르 목사와 그가 운영하는 서점 직원 누 하마미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라히드 목사는 오란 씨티(L'Oratoire)교회를 목회하며 책과 문구를 파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 하마미는 그 서점의 영업사원이다. 라히드 목사님과 누는 지난 2월 27일, 서점에 무슬림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으로 여겨지는 책들이 있다는 이유로 '개종강요 시도' 죄로 기소됐다.

알제리의 비무슬림 예배를 규제하는 법 조항은 무슬림의 신앙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인쇄물, 시청각물을 생산, 보관, 복사, 사용하는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한다. 경찰은 2017년 9월에 서점을 급습하고 성경을 포함해 기독교 서적들과 출판물들과 인쇄기를 발견했다. 라히드 목사와 누 형제는 2년 감옥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알제리에서 기독교인 박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와 새 삶을 알게 되기를,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넘어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기를 기도하자.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인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사이클론까지... 현지 사역자들도 사망

인도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다소 잦아든 상황에서도 매일 35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4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있으며, 네팔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에 급속도로 확산돼 현지 사역자들도 감염과 사망이 번지고 있다고 본지 통신원이 전했다. 최근 NDTV 등은 대형 사이클론까지 덮쳐 구자라트주에서는 15만 명이 이상이 대피하고 치사율 50%의 공광이균까지 번져 인명 피해가 크다고 보도했다.

코로나에 사이클론까지 덮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이때에 인도의 영혼들이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부르키나파소, 무장단체 공격 6년간 4000명 사망... 기독교인 표적

부르키나파소에서 알 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IS) 소속 단체와 같은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6년간 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 국가이익센터'는 지하드주의의 중심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 부르키나파소로 이동했으며, 모든 종교를 없애려는 지하드주의자들에게 일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르키나파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박해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믿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교회를 멸하는 지하드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셔서 악행을 그치게 하고, 생명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뿐 아니라, 이들에게 표적이 되어 짓밟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안전과 평강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올해만 살해 1470명·납치 2200명 이상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올해 4월까지 이슬람 지하드주의자들에게 최소 1470명이 살해당했으며, 2200명 이상이 납치당했다고 지난 1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해에만 기독교인 3600여 명이 살해됐으며, 이는 2018~19년의 사망자 수인 1350명보다 3배 증가한 수치다. 살인의 절반 이상은 무슬림 풀라니족 목동들에 의해 자행됐다.

갈수록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시는 성도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성도들이 박해 중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GPNEWS]

[해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목회자의 성적 정체성 논란의 경과

<1면에 이어>
UMC 산하 연회 소속 목사의 '재파송 불가' 결정만으로는 이 사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 이슈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성적 정체성을 밝힌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느냐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매년 총회에서 이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던 UMC는 지난 2019년 2월 특별총회에서 총감독회 주관으로 총회를 갖고 교단을 깨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당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총회에서 '동성애 목사를 허용하고 공존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총회는 정반대로 전통주의 장정에 따라 동성애 목사 안수는 불법이며 오히려 처벌조항을 신설, 기존 전통주의

교단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동성애 목회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UMC 목회자의 분명한 입장임이 드러났다. 성도들을 목양해야 하는 목회자가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교단의 정서가 재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감독 등의 목회자들이, 동성애 목사 허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새 교단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자신들이 가진 자격과 권한으로 계속해서 감리교단을 흔들며 분열을 조장했다. 이에 따라 UMC 교회들은 2020년 1월 3일 또다시 총회를 열어, 요한 웨슬리 목사의 3원칙(Do no harm 남을 해치지 말 것, Do Good 선을 행할 것,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것)에 따라 계속 싸우며 분열하기보다 교단을 둘 또는 셋으로 분리하고 각자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갈 것, 분리 과정에서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프로토크)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번 가주태평양연회 하기가 감독은 이 같은 신사협정과 달리 동성애자 목사 안수 파송을 반대해온 일부 한인 목사의 재파송 취소를 결정, 많은 한인교회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미주 지역의 일부 다른 연회에서도 전통주의 장정 즉, 동성애 목사 안수 파송을 거부해온 목회자들이 잇따라 현재 소속 교회에서 다른 직책으로 전보되는 형태로 징계와 보복성 인사가 단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5월 31일 ~ 6월 12일

- 5월 31일 ~ 6월 5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5.31(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5.31-6.4(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5.31-6.5(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5.31-6.5(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6.1(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6.1,3-5(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6.4(0-24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6.4(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6.4(10시)-5(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 6월 7일 ~ 6월 12일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강**)010-8786-1538,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6.7(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6.7(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6.7-11(0-24시)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정**)010-6280-4419, 6.7-11(10-20시) ▶전북 전주 / 주를따르는교회(김**)010-4743-9397, 6.7-11(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6.8, 10-12(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6.10(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6.11(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4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코로나 팬데믹 시대, 교회됨과 제자됨을 세울 기회입니다”



이강우 목사(좋은나무교회)

“코로나19의 팬데믹한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에서 급속하게 계도화(고립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회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이때 교회의 본질과 제자양육을 초점으로 교회 혁신을 시도해온 이강우 목사(좋은나무교회)의 말이다. 이목사는 ‘교회됨(처치십)’과 ‘제자됨(디사이플십)’을 교회의 두 기둥으로 세워, 달려온 지나온 시간을 최근 한 권의 책 ‘코로나 시대 되는 목회’(국민일보 간)를 발간했다.

- 먼저 좋은나무교회를 소개해주세요.

“40여 년 전 두 교회가 합병해 성도 80여 명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합병 이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20년 전, 8명이 남아 노회에 교회를 반납한 상태에서 신학교 은사인 유영기 목사님(전 합동신학대학 박사원장)의 추천으로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아이들까지 합쳐 370여 명의 성도가 함께 주님의 몸으로 살기 위해 씨름하고 있습니다.”

- 책의 부제가 코로나 시대, 처치 이노베이션의 교회 본질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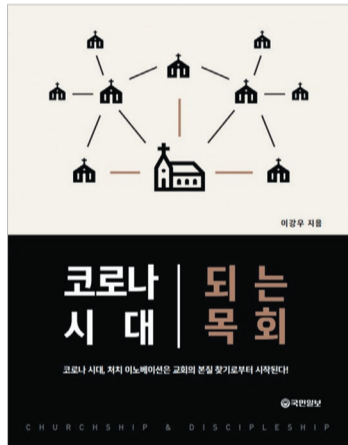
“이 책은 한 일간신문에 연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저희 교회에서 일하신 주님의 자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40일간 집중하는 말씀훈련, 로마서 전체를 한글과 영문으로 암송한 아이들, 일본 선교의 역사 등 교회됨과 제자됨을 목표로 순종한 저희 교회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 교회됨과 제자됨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회됨은 사전적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의 부족

한 부분을 채워가며,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함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죠. 그것이 교회됨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제자됨은 세워진 사람이 홀로 독립을 해서 시련이 와도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전도자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 교회됨을 목회 가운데서 어떻게 세워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도가 200명 이상이면 대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인원수에 있지 않고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



▲ 이강우 목사가 교회됨과 제자됨을 목표로 순종한 교회의 역사를 담았다.

회는 월세를 못 내며 고통하는 이웃교회를 섬겼습니다. 자랑 같아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고통에 빠진 이웃교회를 섬기기 위해 1억 원의 현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50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루하루를 지내왔습니다. 그런 교회됨의 한 걸음은 또 다시 열방을 향한 한 걸음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 열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제작한 네팔 선교사를 위한 책자나 일본을 위한 기도매뉴얼이 있습니다. 네팔 선교사를 위한 책은 네팔에서 사역하는 중국 사역자를 위한 책입니다. 집필과 제작에 1년이 걸렸습니다. 20~30명만이 사용할 책자를 만드는데 그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였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 책의 한글본도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한글 책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 기도매뉴얼은 어떤 책인가요?
“2011년 여름에 기도하던 중 ‘일

본 선교’에 대한 부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1년 반에 걸쳐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조사하고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도매뉴얼의 열개가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주님께서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한국 민족이 가진 일본에 대한 피해 의식을 예수님이 부여하신 일본과 일본인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어주시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도문으로 정리해 최종적으로 이 책은 일본 현지교회와 선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과 일본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 기도매뉴얼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일본의 부흥을 소망하며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조사해 보니, 이들은 참 하나님 나라 백성에 가까운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근면함과 수직적인 사고, 개인과 공동체의 하나됨, 와(和) 사상으로 나타나는 코이노미야의 길, 세계 최고의 법을 준수하는 국민성과 도덕질서의 능력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기질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규칙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그런 성향 덕분에 일본이 근대에 극적인 성장을 경험했지만, 일본은 주변국들을 고통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회개의 기도와 함께 일본인의 탁월한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드러지면 그 능력으로 일본을 살리고 영국을 살리는 선교대국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책은 약속의 말씀, 영적 전쟁, 교회됨의 기도 등 3부로 구성해,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 교회됨과 제자됨을 위해 교회가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요?
“현재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심각한 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세대를 세우는 세대 잇기를 위해 다양한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전국 미자립 교회 등에 어린이 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120여 교회에 트램펄린(일명 방망

이)을 무료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말 캠프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6년 전부터 순종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머물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떤 훈련이 이뤄지고 있나요?
“성경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동산에서 범죄로 영이

다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함께 산악 등반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 책은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처치 이노베이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혁신(革新)은 가족을 벗기는 뼈아픈 갱신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혁신, 이노베이션은 기술을 높이고 생산공정을 단축해 경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은 교회가 뼈아픈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 다음세대 아이들을 훈련하는 주말 캠프 현장. 제공: 좋은나무교회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됨은 순환과 번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는 속죄, 축복,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순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준다는 원칙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다양한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수식적으로 분석해 그것을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해 교회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 사설을 읽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말 캠프에서 그런 훈련과정이 이뤄지나요?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저녁까지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훈련과 함께 주말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에서 모이는 숙박 모임 대신, 가정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훈련 과정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서로 회개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실행합니다. 특히 우리교회는 주일학교에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도록 독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이들을 제자로 키워내야겠

처치 이노베이션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이뤄집니다.”

- 코로나19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또 기회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대면예배는 대면예배의 완벽한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 예배일 뿐입니다. 코로나19는 그래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코로나19 시대 혁신을 이끄는 예배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정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합니다. 강력한 가정예배의 불길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비대면예배를 잠시 드린다 해도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 이 책을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군요.

“네. 한국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흠어진 소그룹 예배는 전쟁이나 종교적·사상적 핍박의 결과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앞에서 가정예배나 소그룹 예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잘못됐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세상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음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가 교회됨과 제자됨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GPNEWS]



▲ 아이들과 함께한 산악 등반. 제공: 좋은나무교회

기획 | 창조 이야기 (55)

태아는 사람! 낙태해도 된다는 진화론은 거짓말이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진화론은 태아는 아기가 아니라고 말한다. 거짓말이다. 성경에는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게 태아가 있은즉'이라고 하지 않고, '아이가 있은즉(임태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신다(창 16:11).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인 것이다.

교과서는 발생학을 포함하고 있다. 이유는 바로 그것이 낙태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지구의 인구를 줄이고 싶어 한다. 이미 지구 전체 인구의 20%인 10억 명이 낙태로 살해됐다. 히틀러는 약 600만 명을 죽였고 스탈린은 약 1억 명 정도를 죽였는데 낙태는 약 10억 명을 죽였다.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었다.

플로리다주 펜사콜라(Pensacola)에서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와 경

호원이 낙태 반대주의자에게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펜사콜라에 몰려와 큰 집회를 열고 동태를 행진하려고 했다. 그들은 '선택 우선'이라고 쓰인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 여성들은 "여자에게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자기 몸이니깐."라고 설명했다. 이 대답은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하게 한다. 왜 여성의 선택권이 출산에서 멈추는가? 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엄마에게 죽일 권리를 주지 않는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낙태를 연장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은 훨씬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아들아,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를 낙태하겠다."

생명윤리학 피터 싱어 교수는 출산 후 28일 안에 죽이고도 그것을 '낙태'라고 부르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디어 매체들은 그들을 '선택 찬성파'라고 부르고 반대의 사람들을 '낙태 반대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낙태 반대주의자'는 부정적으로, '선택 찬성파'는 긍정적으로 들리게 한다.

콜로라도에서 아이들이 총을 맞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총기규제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교내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다른 문제들을 다룰 시간이 된 것은 아닐까? '공립학교가 있어야 하는가?' 또는 '진화론을 가르쳐야 하는가?' 같은 문제들 말이다. 왜냐하면 진화론 때문에 1999년 4월 20일, 콜럼바인 총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들은 아주 강한 진화론의 신봉자들이었다. 그들이 총격 전에 찍은 영상에서 '그는 진화가 가져다 준 턱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의 턱을 찾아 보라. 그의 몸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고의로 히틀러의 생일을 택하여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야 솔을 쏘았다. 총을 쏜 에릭 해리스의 티셔츠에는 '자연 선택'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미 낙태를 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으시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다고 낙태는 '괜찮은 것'이



▲ 성경에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라고 말씀하신다. 출처: unsplash

아니다. 살인이다. 다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성경의 절반은 은혜 받은 살인자들에게 의해 쓰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 말한다. 실제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매년마다 입양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의 숫자가 낙태되는 숫자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그 아이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이가 경제적으로 짐이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생기는 아이에 대해서도 낙태를 말한다. 하지만 죽어야 할 대상은 아기가 아니다. 강간범을 처형하고 아이를 입양 보내는 방법도 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선택 찬성파'가 되는 것은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낙태는 합법"이라고 말한다. 합법이 된다고 해도 옳은 것은 아니다. [GPNEWS]



선교 통신

태국, 네팔 등 이주민 위한 현지어 온라인예배 "활발"



▲ 온라인으로 진행된 네팔인 복음캠프. 제공: 진성운 선교사

코로나 사태로 대면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이주민을 위한 온라인예배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태국인을 위한 피양교회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매주 주일 11시에 태국어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에 교회 개척선교사로 헌신한 유광호 선교사의 헌신으로 시작된 이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태국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상예배를 시작했다. 이 교회 성도이자 태국 이주민 두왕찬 형제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영상예배

를 통해 그는 더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기를 원했다.

두왕찬 형제의 찬양인도로 시작해 각자의 삶을 나누고 유광호 선교사가 메시지를 하며, 예배가 진행된다. 또 한국어로 선포되는 말씀을 서해진 선교사가 태국어로 통역한다. 성찬식 이후 열방과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로 예배가 진행된다.

두왕찬 형제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100명이 넘을 때도 있지만 영상을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매주 찾아와서 참 감사했다."고 말했다. 현재 영상 예배는 태국으로 돌아간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예승선교센터에서 매 주일 네팔어 예배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네팔에서 14년간 선교 사역을 하다 현재 한국에 귀국, 네팔인 사역을 하는 박성규 선교사가 예배를 섬기고 있다. 2014년부터 추석과 설 명절,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 복음수련회를 통해 복음을 전해온 박 선교사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토요일 밤에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52기도정보를 이용해 네팔어 기도모임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 선교사는 "온라인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형제들도 있고, 토요일 기도모임에 가끔 네팔에 있는 이주민 가족들도 참여하고 있다."며 은혜를 나눴다. 그는 또 "국내에 있는 5만여 명의 네팔 이주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네팔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도 있다.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귀국한 진성운 선교사는 현지 교회와 협력해 영성회의 시스템으로 3월과 4월에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복음캠프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예승선교센터가 진행하는 네팔인 이주민복음캠프를 함께 섬긴 이후 시작된 온라인 사역이다.

진 선교사는 "수강생의 반응을 볼 수가 없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염려했지만 복음의 핵심 진리에 도전 받고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감사의 고백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년 동안 이주민들을 섬기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보았다."며 "선교지에 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디어를 통해,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을 통해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본다."고 전했다. 진 선교사는 복음캠프 외에도 줌을 통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52기도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GPNEWS]

복음의 능력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심 때 받았던 성령 충만보다 훨씬 더 많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에게에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가 만나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해 동안 성령 충만을 막연히 원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선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열망에 불타야 한다. 이런 열망이 다른 모든 욕구를 몰아낼 정도로 강렬할 때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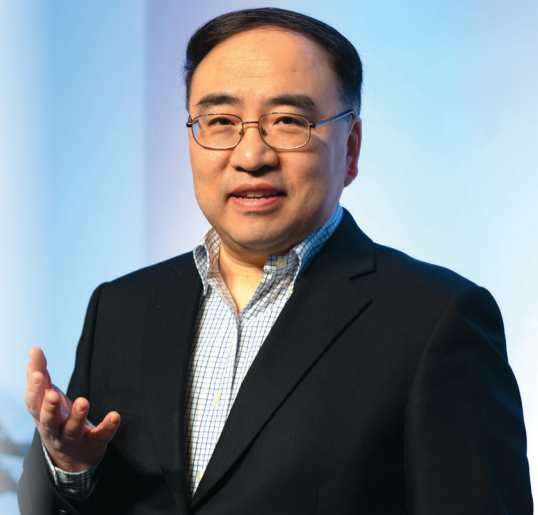


성령님 (A.W. 토저)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테스트니가 있어요”

선교적 교회로 순종하는 고성준 목사(수원하나교회)



제공: 수원하나교회

수학박사에서 목회자로 변신한 특별한 이력의 목회자 고성준 목사(수원하나교회). 국내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서울대 수학과와 동대학원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를 졸업했다. 이후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다시 신학을 전공, 목회자로 전향한 그를 바꾸신 하나님과 그의 삶을 들었다.

-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좋은 대학에 가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았어요. 원하는 대학에 갔지만 6개월쯤 지나고 나니 허무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순간에서 있는데,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았던 순간인데, 그 행복이 6개월짜리라면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이 뭘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회 선배가 제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였는데,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만나달라고 기도했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2~3시간 동안 펄펄 울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음 날 일어났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짝 찬 느낌이 들면서 새로운 삶이 펼쳐졌어요.”

성취는 행복의 조건 아니다

- 목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렇게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수학을 전공하고 교수 이외에 다른 것을 할 거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 전공을 위한 미국 유학도 했죠. 그러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길고긴 사연이 있지만, 선교를 준비하다가 주님의 특별한 역사로 생각지도 않은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선교하는 교회를 섬길 마음을 주셨어요.”

- 수원하나교회의 이름에 그런 목

회 철학이 담겨있나요?

“하나교회는 7개 교회와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하나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로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는 취지로 모두 한 교회라는 정체성 안에서 함께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비도 함께 후원해요. 교회는 서울, 원주, 대전, 부산 등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은 수양회로 함께 모여요.”

- 하나님을 만나면서 수학적인 논리나 이론들이 성경을 알아가는



▲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고성준 목사. 제공: 수원하나교회

데 도움이 됐을까요?

“잘은 몰라도 분명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이해할 때도 수학적 사고, 인식의 프레임이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출판한 책 ‘카이로스’(규장, 2020)가 그 예일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담은 내용이에요. 수학은 원리에 대한 학문이지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세계를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나름의 질서와 원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영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돼요. 제가 전공한 학문이 위상수학이에요. 공간에 대한 학문이지요. 4차원, 5차원 등을 다루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미리 훈련이 좀 됐던 것 같아요.”

- ‘테스티니’라는 책은 그것보다 먼저 쓰셨지요? 이 책은 어떻게 쓰여졌나요?

“테스티니는 소명,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표현하는 우리말은 없는 것 같아요. 언어는 언어가 형성된 문화와 역사에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는 불교와 유교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테스티니를 직역하면 팔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순화시키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 사람을 향한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지 않으시는 일은 시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것을 테스티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테스티니’가 있다

-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테스티니는 인생의 목적이예요. 테스티니에서 멀어지면 공허와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의 삶에는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이에요. 디자이너와 멀어지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죠. 행복과 인생의 만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테스티니의 능력이예요.”

고목사는 자신의 저서 테스티니(규장, 2016)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명확한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우리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계획이다.”

- 목사님의 테스티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목회자로 부르신 게 테스티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큰 감격이 있어서 목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가 바로 접었어요. 제가 말을 더듬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선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뜬금없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선배 목사님이 시민권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교회를 일팔결에 맡게 된 거죠.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더듬이를 놀랍게 고쳐주셨어요.

그때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라는 확증을 주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싫다든지, 재미없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늘 재미있고 신이 났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은 아니었어요. 영적인 만족이 있었어요. 이게 테스티니인 것 같아요.”

- 그런 깨달음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가 선교사가 되는 게 나의 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주셨어요.”

- 그렇게 받은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방향이 있지는 않아요. 교회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동에 있는 무슬림과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교회에서 난민을 돕는 NGO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지만 지난 몇 년간 난민을 섬겨왔습니다.”

- 선교 팀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훈련 받고 파송된 장기선교사들은 중동 쪽으로 갔습니다. 현재 20여 가정 됩니다. 청·장년은 일주일에 10일, 청년은 1~2년 정도를 중동에 가서 문화를 익히고 난민을 돕습니다. 청년들에게 중

청년 때 선교를 나가서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친구를 사귀어서 돌아오면 그 지역까지 자기 삶의 영역이라고 느껴요. 직업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한국 아니면 선교지에 찾아요. 이것이 선교적인 DNA를 넣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선교적 마인드를 심어서 선교적 교회를 실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지향

- 교회가 단순한 선교사 후원이 아니라 훈련과 파송을 동시에 하시는군요.

“당초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고, 목회보다는 선교사의 DNA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선교 전략을 짜는 게 사역의 7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존 선교단체와 듀얼 멤버십을 가지는 게 조금 어렵더군요. 제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다른 선교단체와는 전략적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선교사 파송을 직접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회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 목사님도 선교 현장에 많이 가시나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1년에 절반 정도는 선교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주일 밤에 비행기 타고 나가서 금요일에 돌아온 했어요. 주말에는 설교하고요. 체력이 많이 딸리기도 했는데, 주님께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더군요. 지금은 제가 혼자 다 하지 않고 미국에서



▲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제공: 수원하나교회

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일이에요. 언어가 익숙해지면 삶의 터전이 그곳까지 확대가 돼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 제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는 곳이 미국까지였어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확장시켜주고 싶었는데,

선교단체를 오랫동안 하시던 목사님 한 분과 연합하고 있어요. 그 단체와는 듀얼 멤버십을 갖고 전략도 같이 짜고 선교사 파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GNPNEWS]

C.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강권적인 은혜의 복음 (8)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내 모습이 보인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어느덧 복음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많은 과정을 겪다 보니 복음에 지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식고, 이제는 은혜를 더 받을까봐 무섭고, 다 아는데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던 힘겨운 복음의 걸음에 슬그머니 평범이라는 유혹이 강하게 밀려오기 시작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큰소리치고 용기 있게 나섰지만,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나도 천국에 당장 가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으니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평범이라는 유혹에 자꾸만 마음을 열게 된다.

‘나 혼자 가는 것 아닌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나?’ 그동안 속지 않았던 그 병든 자아의 예민한 감정과 인간적 욕정이 일어나고 인정과 평판과 사람 냄새가 자꾸만 그리워진

다. 이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걸론 났고 그 속임에서 벗어난지 오래됐지만 때로 영혼과 마음에 병이 들어서 힘겹게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어느덧 첫사랑이 식고 나면 평범의 유혹에 빠져든다. 이 자아의 타락한 욕구는 아직 마음 안에 포기하지 않은 옛 정서를 자꾸만 부추기고 끌고 가게 된다.

똑같이 봉사하고, 복음을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데 이전과 다르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셨던 이 상상할 수 없는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칼을 갈게 된다. 그토록 대단한 신학지식, 종교적 위상, 복음적 진리를 다 가지고 있고 몇 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만 구원의 감격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집안의 탕자, 큰아들 같은 자가 바로 나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요만큼

도 없는 자가 바로 나 아닌가.

주님의 이 거룩한 잔치에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청함 받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빠졌던 오만 때문에 그렇지, 거기 갈 자격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합당한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불러다가 그 은혜의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 아닌가.

이 놀라운 감동적인 메시지를 듣고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에게 분노했다면 아버지의 말에 주목하라. “얘야! 내가 받은 게 다 네 자격 때문이 아니라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냐. 내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네 수고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그저 값없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내 것은 다 네 것이란다. 그런데 기억해! 네 동생,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잔치의 주인공인 네 동생이야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



일러스트=이예원

으므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 드라마에 걸로 드러난 죄인은 동생이었지만 형이 덜컥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드러난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죄된 모습이었던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4월) <계속> [G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2021학년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 모집 대상**
 - 2021학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11세)부터 중학교 3학년(16세) 연령대의 학생. (고등학교 1학년(17세)은 1년 하향지원 가능)
 -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 입학설명회**
 - 2021년 7월 3일(토) 오후 2시~5시 (장소는 개별공지)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21년 6월 7일(월)부터~2021년 6월 26일(토)
 -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 요망.
 - 입학설명회는 지원하는 학생과 양 부모님 중 한 분은 필히 참석. (해외 거주자 문의 요망)
-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만 교부. (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 원서접수기간: 2021년 7월 3일(토)~2021년 7월 23일(금) 소인. (해외 거주자 문의 요망)
-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1차 합격자 발표: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 2차 2021년 8월 2일(월)~2021년 8월 7일(토). 'Camp Go up to Hebron!' (Camp기간 중 면접과 시험이 포함)
 - 3차 2021년 8월 9일(월)~2021년 8월 11일(수) 최종면접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021년 8월 14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년 9월 7일(화) 입학식
- 문의 및 접수처**
 - 010-2461-1718, 010-8952-0981, 070-4369-7656 헤브론원형학교 입학사무처
 - hebronschool@hanmail.net
 - 우)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 (구 시온수양관)

2021 헤브론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훈련생 모집

- 대상: 초6학년 ~ 고3학년 연령대 형제 자매
- 기간: 2021. 6. 28(월)~7.1(목) (3박4일간)
- 접수기간: 2021. 5. 21(금)~6.8(화)
- 장소: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원서: 헤브론원형학교 홈페이지(www.theschoolhebron.org)에서 다운로드 이후 우편접수
- 회비: 10만원(문의: 010-2469-4641, 010-8344-1718)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태복음 9장 35절)

병원을 주님께 드리며 재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 “함께 해요”

대상자

- 목회직: 목사, 전도사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삼성초대교회와 선교동역하실 분
- 전문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간병사 그 외 의료 전 분야에 걸쳐 환자 선교의 사명을 가진 분

삼성연합의원 · 삼성초대교회 | 문의 ☎ 010-8528-3217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마음에 떠오른 세 마디, '열정, 깨어 있으라, 충성'

온라인으로 열리는 기도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주제의 강의와 매일 기도학교에서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주는 기도를 독려하는 글들을 읽으며 '나에게 기도는 어떤 것인가?' 돌아보게 되었다. 규례로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시간을 가졌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내 기도예 공통점이 보였는데, 그것은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기도였다.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더니 어느새 부담감만 백배가 되어버렸다. 훈련 첫 주에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자리에 앉았다. 책을 읽고 매일 SNS에 올라오는 글을 읽으며 매순간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그러다 약속이 생기면서 마음이 분주해졌다. 마음이 또 털썩 무너졌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



일러스트=고은선

쳐 주십시오.' 나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기도학교와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피곤함을 이기려고 오후에 마셨던 커피로 인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기도시간을 맞는데 일어날 힘이 없었다. 힘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떠오르는 세 마디가 있었다. '열정!' '깨어 있으라!' '충성!'

"주님~" 힘없이 주님을 불렀는데 '내 마음을 열어 보여 주려고 너에게 기도할 제 목들을 주었다.'는 마음을 주셨다.

내가 짐짝처럼 안고 있는 기도제목들은 때를 써서 받아야 할 것들이 아니었다. 기도보따리는 짐짝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 보여주려고 나를 부르신 은혜의 도구였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기도할 일들을 주시고 내가 기도자리에 나오면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며 기도로 이끌어 주셨다.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군요.' 비로소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야다'(체험하여 알다는 뜻의 히브리어)하여 알게 되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어 기도를 쉬는 악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뜻을 알아 기도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보이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기도이다. 열정도 나의 열정이 아니고, 깨어 있음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충성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기도가 감사가 되게 하셨다. 계속해서 부르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실 주님이 너무나 기대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GNNEWS]

이근희

복음의 소리 316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음란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Q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음란물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기독교관련 상담도 몇 번 해보았고, 일부러 거주지를 옮겨 보기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다녔지만 해결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A 음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군요. 존재적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음란의 문제는 쉽지 않은 죄의 영역입니다. 먼저는 자신만 특별히 깊이 음란에 빠졌었다고 생각하고 어둠 속에 들어가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서 주님과 의 사귀는 바로 죄에 대한 다루심과 형제님의 참된 변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요일 1: 6~7). 사실 복음은 개별적인 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 자아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형제님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선 음란이 해결되는 답을 원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급하게 음란의 해결만을 추구하기보다, 먼저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나의 죄 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형제님 안에 사신다는 것인지 차근차근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로서는 음란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력갱생 0%를 빨리 시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복음은 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GNNEWS]

부흥을 위하여

北, '돈 이관 브로커' 대대적 소탕... '탈북민 돈'이 체제 위협



▲ 북한 양강도 해산시 전경. 출처: 데일리NK 캡처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 국가보위성이 탈북민으로부터 오는 큰돈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돈 이관 브로커'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이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보

위성은 국경 지역의 돈 이관 브로커 20여 명을 대거 잡아들이면서 중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이들을 전부 초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의서를 중앙에 올렸다. 보위성은 중국에 나가 있는 비법월경자들은 인신매매꾼을 제외하면 대체로 액수가 적은 돈을 보내

지만, 1만 위안(元, 한화 약 177만 원) 이상 되는 큰돈은 대부분 월남도주자(한국

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 30%의 수수료를 떼는 돈 이관 브로커들도 큰돈을 받을수록 떨어지는 수수료가 많으니 주로 탈북민들이 보낸 돈을 전달하는데, 이로 인해 탈북민 가족들이 잘살게 돼 내부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제의서에 대한 중앙의 비준을 받은 보위성은 지시 관철 차원으로 향후 전 국경 지역에서 총 6차에 걸친 돈 이관 브로커 소탕전을 전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앞으로 국경 4개 도(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에서 수백 명의 돈 이관 브로커들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보위성은 일단 잡히면 10~15년 교화형을 내리고, 그 가족

최근 평양과 황해북도 일대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빠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전단은 지난 10일 평양 외곽 사동구역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장천협동농장과 인근 주택가에 전단이 대량으로 살포된 것이 발견돼 사법당국이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뿌려진 전단을 수거하기 위해 안전부(한국의 경찰에 해당)와 인근 부대 군인들까지 동원

들도 국경과 멀리 떨어진 협지로 추방하고, 그들의 집도 무상몰수해 제대군인, 영예

군인(상이군인), 공로자들에게 준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GNNEWS]

北 자체 삐라 대량 발견, '김정은, 김여정 비판'

됐다. 소식통은 "얼마나(전단을) 많이 뿌렸는지 아예 새하얗게 떨어져서 사흘 동안 수거해서 불태웠다."며 "얼마나 멋있게 썼는지... 김정은 시대는 끝났다, 망했다 그런 내용이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전단의 내용에 주민들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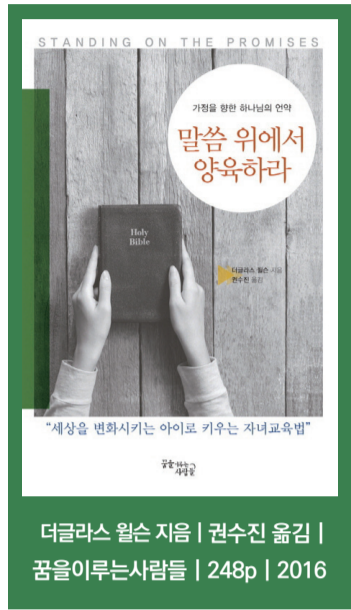
이번 평양 사동구역에서 발견된 전단은 남한에서 뿌려진 전단과 달리 저질 종이에 인쇄된 것이어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평양의 당 간부에 따르면, 평양에서 발견된 전단에는 "김정은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개방해야 잘 살 수 있다." "김여정은 악종(惡種)"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매우 예민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구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며 "과거 공공장소나 인적이 드문 건물 벽에 최고준엄과 체제를 비판하는 낙서 사건은 종종 있었지만 대규모 반동적인 전단이 살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GN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더글라스 윌슨 <말씀 위에서 양육하라>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성경



이 책의 원제는 '약속 위에서 서서: 성경적 자녀 양육의 핸드북(Standing on the Promises: A Handbook of Biblical Childrearing)'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제일 먼저,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고 말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믿고, 그것을 충실히 순종하여 언약을 지키는 부모에게는 이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신명기 6장 7절에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신다.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성경이어야 하며 부모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시 103:17~18)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

는 자에게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삼기 원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다. 그러나 이것은 충실히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또한 말라기 2장 15절에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다는 약속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경건한 자녀들로 키워주시길 구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나는 결혼 14년차의 세 자녀 엄마이다. 결혼 이후 나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독립적이며 순종을 하기 싫어하는 자인지 보게 됐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울음이 아닌 진리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된 부부의 연합은 크고 놀라웠다. 첫아이를 주님이 허락하셨을 때 내 아이조차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없는 이기적인 나와 직면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 어린아이들을 지나치게 징계하고 나의 분노를 쏟아냈던 부끄러운 시간을 지나게 되었다. 그 과정 속에 주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도록 인도해주셨다.

성경적 문화를 가정에서 배워야

저자는 또 부모가 사랑과 훈육, 기도와 가르침,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죄를 (텔레비전, 라디오, 책 또는 학교와 다른 친구들에게서) 걸러냄으로써 성경적 문화를 가정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는 집을 아이들이 그저 먹고 자는 곳이 아니라, 배우고 양육하는 곳으로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배우고 영향받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주체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성경

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말씀대로 결혼의 영광과 자녀 양육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일어나야 할 것을 강력하게 피력한다.

책을 보는 내내 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게 되었다. 부모를 통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이토록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졌다. 저자가 말하는 대로 복음의 때를 조작하려 하지 않고, 가르치고 기도하며 친밀감을 유지하고 싶다. 옛 사람의 본성으로 자녀 양육에 뛰어들면 실패일 수밖에 없기에, 말기신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지기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더욱 기도한다.

다음세대여! 주님의 약속대로 경건한 다음세대로 일어나라! 부모세대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되게 부르심에 응답하라! 마라나타! [GPNWS]

김은영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인니, 홍수와 산사태 지역에 구호물품... 쉼바섬의 부흥

최근 사역을 시작한 쉼바섬에 지난 4월 초 폭우와 강풍, 홍수가 강타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각 마을 길들이 모두 산사태와 홍수로 붕괴되어 사역 도중 급하게 말랑으로 돌아와, 여러 상황을 파악하며 긴급 구호물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다시 쉼바섬의 꾸빵 지역에 들어가 26개 마을을 다니며 긴급구호 사역을 하며 피해 상황들을 조사했습니다.

사역하는 동쉴바 지역 19개 마을에 건축한 교회 중 6개 마을 교회가 파손됐습니다. 특히 2개 마을은 약 100여 채 집들이 완전히 파손되고, 마을 사람들이 경작하던 옥수수 밭들은 홍수와 폭우에 완전히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들은 현재 엄청난 메뚜기떼들이 몰려들어 먹어 치우고 있어 쉼바섬 각 마을마다 식량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쉴바 지역의 주민들은 상상도 못했던 재해로 인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피난 갈 곳이 없어 무너진 집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버티는 주민들, 지붕이 없어진 집에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짓고 있는 주민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과 주민들, 마을에 유일한 교회가 완전히 파손되어 예배드릴 곳이 없어진 마을들... 이들을 보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한쪽은 넘쳐나서 버리고, 어느 한쪽은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복음만이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번 재난을 기회로 많은 이슬람 단체들이 구호품을 앞세우고 들어와 구호품과 함께 이슬람을 전하고 있어, 한 마을이라도 이슬람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까지 3~4시간씩 걸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무너진 교회들을 하나씩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여 예배를 다시 세우고, 또한 쉼바섬 26개 마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식량을 공급해 주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하루는 산속 마을에서 사역하던 중 산꼭대기에서 갑자기 타고 가던 트럭 앞 양쪽 판브레이크가 모



▲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쉼바섬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제공: 함춘환 선교사

두 파열되어 버렸습니다. 차량 제어가 안 되는 가운데 간신히 망가진 차를 정지시켰습니다. 몇 바퀴만 더 굴러갔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고쳐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산봉우리 위에 차량을 두고 마을로 내려가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 달려 큰 길가로 나와, 지나가는 트럭을 간신히 얻어 타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트럭 뒤 짐칸에서 녹초가 되어 쪼그려 앉아 있다가 우연히 쳐다본 하늘에 많은 별들이 반짝

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가슴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2020년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모든 선교 활동들이 멈추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쉼바섬은 더욱 부흥이 되면서 새로운 마을들이 개척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새로운 마을에서 34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GPNWS]

인도네시아= 함춘환, 김성혜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구독신청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4. 29 ~ 5. 19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고은아 권순호 김다경 김사회 김선례 김선희 김성훈 김신애 김영아 김유남 김정희 김주열 노은옥 류양임 박경희 박성규 박신희 신현경 안민자 안수경 안영숙 오세주 오혜숙 유재윤 윤경석 은종숙 이영심 이영옥 이종훈 이준진 이진희 정금자 정영숙 조형광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연례 최정옥 최정숙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게르교회 반석중앙교회 고현교회 모리아선교회 문광교회 산곡교회 신한테크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선일교회 주나인교회 주만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앗다라교회 하원교회 토론도한인침례교회 헵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D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